

통시文化考

- 濟州島 庶民文化의 一斷面 -

정 광 중*

〈 목 차 〉

- I. 머리말
- II. 전통적인 제주도 통시의 구조와 형태
- III. 통시의 이용
- IV. 돼지 사육에 따른 돛거름(돼지거름)의 생산과 이용
- V. 맺음말 : 「전통」 문화 소멸의 시사점

I. 머리말

변소는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다. 다시 말해, 변소는 집안이나 집밖의 생활을 통틀어 1일 최소 5~7회 정도의 대소변을 해결함으로써, 인간의 생리적 현상에 따른 체내 물질대사의 균형을 조절하는 필수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소가 특정국가나 사회의 발달정도에 따라서 구조와 형태, 이용방법 나아가 변소를 매개체로 한 재생산 활동 등이 현저하게 다르게 존재해 왔음은 거론할 여지가 없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과거의 통시(변소)가 하나의 정형화된 관광상품적 가치를 지닌 요소로 등장함으로써, 이제 통시라는 문화적 산물은 과거 제주도 주민들의 삶을 조명하는 중요한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접근

*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전통적인 통시와 관련하여 제주도 주민들의 생활문화의 한 단면을 기술하여 보존하는 일 자체는 결국 제주도의 역사를 기록하여 전달하는 중간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면을 띤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현재는 거의 사라져 버린 전통적인 통시를 매개체로 하여 외형적 특징과 구조, 과거 주민들의 이용실태 그리고 통시를 통한 재생산 활동 등을 서민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주로 지지적(地誌的) 관점에서 서술·복원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본고의 고찰은 주로 청취조사를 기본으로 한 현지조사 방법에 의존하여 서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청취조사는 주로 전통적인 통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또한 돼지의 사육과 거름(두엄) 등의 생산을 통해 농사에 직접 활용했던 농·어촌 지역 40대 이상의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농·어촌지역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제주도 전역에서 전통적인 통시의 이용과 그에 따른 재생산 활동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따라서 현지조사가 보다 용이한 농·어촌 지역이면, 본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통시의 기본적인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는 조사시점에서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신엄리와 하가리의 3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부분적으로는 폐가(廢家)이기는 하나 외형적인 형태가 잘 남아 있는 3사례를 포함하였다.¹⁾ 아울러, 통시의 본래적 성격과 특성이 많이 변질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관광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성읍민속마을의 통시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II. 전통적인 제주도 통시의 구조와 형태

제주도의 전통적인 통시는 지역자원이라 할 수 있는 현무암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현무암 이외의 재료로서는 고작 돼지막(돼지집)의 지붕을 구성하는 나무 몇 토막과 띠(茅: 새)가 전부이다. 돼지막의 지붕도 현무암의 판석을 이용한 사

1) 조사시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로서는 신엄리 1가구 및 하가리 2가구를 조사할 수 있었으며, 사용은 중단되었으나 통시의 외형적 특징을 잘 보존되고 있는 사례로서는, 신엄리 1가구(폐가), 고내리 1가구(폐가) 및 하가리에서 1가구를 조사할 수 있었다.

례가 있으나, 서민들의 노동적·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띠를 이용한 형태가 극히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띠지붕의 돼지막이 많았음은 여러 마을의 현지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통시의 외형적 구조는 크게 배변공간, 돼지우리(돼지의 활동공간), 돼지집으로 3분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2], [그림 3]). 이들 3요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그 구조 및 형태의 특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배변공간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생리적 현상인 배설욕구에 의해 앉은 상태에서 대소변을 처리하는 공간이다. 기본적으로 배변공간은 지면에서 70~100cm 전후의 높은 곳에 설치하며, 따라서 돼지우리나 돼지막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는 셈이다. 이처럼 높게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인분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취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돼지가 인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

배변공간은 기본적으로 한사람이 앉을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게 되는데, 제주도 통시의 경우는 그 면적이 대략 0.3~0.5평 정도이다. 이 배변공간은 기본적으로 발을 딛는 장방형의 판석('디딜판' 혹은 '디딜판돌'이라 함) 2개가 중요한 기능을 띠는데, 이것은 좌우로 약 25~35cm 너비로 설치한다([그림 4]). 이 너비는 용변시의 인분이 발을 딛는 좌우의 디딜판에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디딜판돌은 일반적으로 평평한 자연상태의 현무암을 선택하거나 두꺼운 나무판자를 대용하기도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현무암을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현무암의 디딜판돌의 경우, 그 크기는 배변공간의 방향이나 돼지우리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보존되고 있는 민속촌과 현지조사 마을의 사례에서는, 가로(긴 변) 70~80cm, 세로(짧은 변) 25~35cm 정도가 많았다. 디딜판돌의 두께도 민가마다 차이를 보이거나, 대략 20cm 이내의 것이 보편적이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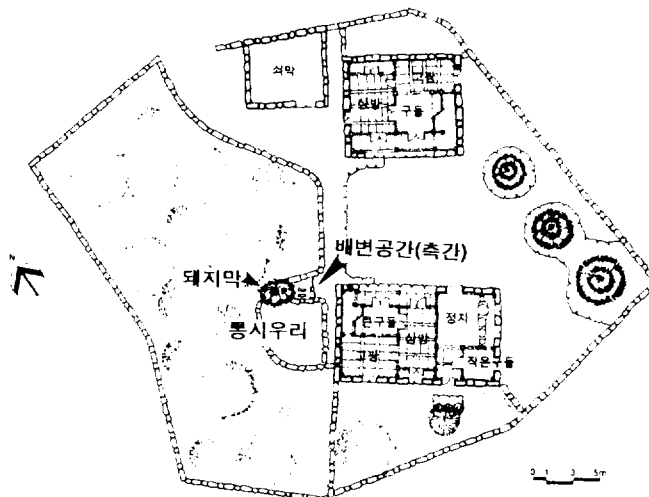
배변공간의 사방은 외담 쌓기로 1m 내외의 돌담을 둘러싸서 외부인의 시선으로부터

2) 최근의 조사에서는 안덕면 덕수리, 애월읍 남읍리, 구좌읍 김녕리 및 성산을 신양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돼지막의 지붕은 대부분 띠를 사용했던 관계로, 여러 폐가에서 확인된 돼지막은 지붕 부분은 남아있지 않고, 돼지막을 둘러쌓던 돌담만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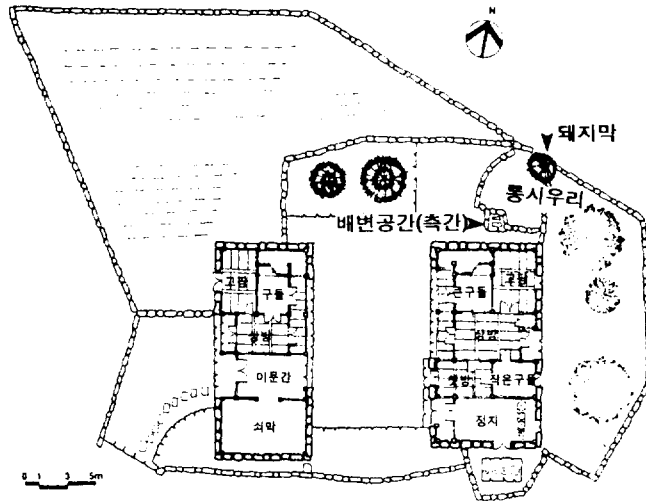
3) 전경수, 1997, 통시와 분노하수처리장 : 환경문제와 생태민속지, (제주국제협회의·제주대 환경연구소·제주지구청년회의소 편, 『제주의 인간과 환경』, 도서출판 오름) pp.119-143. 건축학 연구자들은 제주도의 통시를 보통 돛통(돼지막)과 뒷간(변소)의 2개 요소로 구분하기도 한다.

터 차단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결국, 이점은 통시가 민가 내에서 어떤 방향 혹은 어떤 부속건물 옆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배변공간의 전후좌우 사면 중 다른 건물의 벽체나 집의 담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담장이 필요 없게 되며, 또한 통시 자체가 택지 내에서도 외부인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위치라면, 배변공간의 담장은 한쪽 면(정면이나 측면)만을 가릴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그림 4] 참조).

한편, 전통적인 통시의 배변공간 안에는 단순히 발을 딛고 용변을 볼 수 있는 디딤판만 설치되어 있을 뿐, 그 외의 별다른 시설이나 장치는 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측간의 담장을 높이거나 혹은 새롭게 쌓아올려 지붕을 도입한 형태는 시기적으로 보면 뒤늦게 발전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제주도 통시의 배변공간은 원래 지붕이 없는 형태의 사각 공간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배변공간이 돼지우리나 돼지막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몇 개의 돌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 돌계단의 단차(段差) 구성도 통시가 위치하는 장소의 지형적인 특징과 깊게 관련된다. 보편적으로는 2~3단의 돌계단을 오르게 되며, 보통 지면에서의 높이는 70~100cm의 내외를 보인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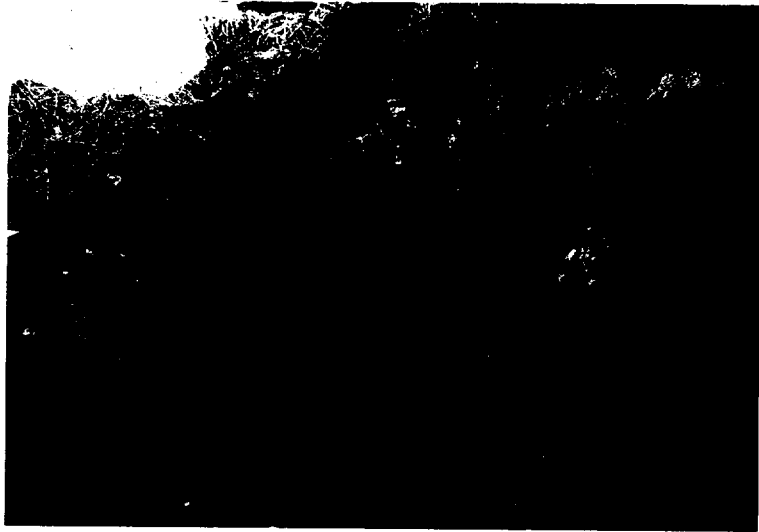
[그림 1] 제주도의 민가와 통시(Ⅰ) : 하가리 문시행씨 가옥(제주도지정민속자료 3-8호)
이 민가의 통시는 안거리 좌측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지와는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 돼지막은 배변 공간의 바로 옆에 설치하고 있다.
(자료 :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Ⅱ)』, 북제주군, p.276에서 인용.)



[그림 2] 제주도의 민가와 통시(II) : 하가리 오경호씨 가옥(제주도지정민속자료 3-9호)
 이 민가의 통시는 안거리의 우측에 위치하며 정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고 있다. 돼지막은 배변 공간과 마주보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자료 :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88), 『북제주군의 문화유적(II)』, 북제주군, p.280에서 인용.)



[그림 3] 통시 : 표선면 성유리(성읍민속마을)
 (사진 촬영 : 1969년 1월 31일)



[그림 1] 디딜팡 : 애월읍 고내리(폐가)
(사진 촬영 : 1999년 1월 26일)

다음으로, 돼지우리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특징이다. 돼지우리는 돼지의 일상적인 활동공간인 동시에 농업용 퇴비(두엄)생산 공간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의미와 결부시켜 해석하자면, 결국 돼지우리는 농촌지역의 가정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연속선상에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돼지우리의 형태는 대개 원형이나 타원형이 주류를 이루나⁴⁾, 택지가 취하는 부지형태에 의해서 사각형이나 기타 여러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그림 1], [그림 2], [그림 3] 참조). 그 이유는 변소 자체가 택지내 마당 한가운데에 설치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돼지우리의 돌담은 그 면적에 관계없이 배변공간인 측간을 축으로, 돼지막으로 이어졌다가 재차 측간까지 이어진다. 돼지우리의 돌담은 외출 쌓기가 대부분이고 높이는 1m 전후이며, 면적은 대략 3~5평 정도이다⁵⁾. 돼지우리 안에는 돼지의 밥그릇이라 할 수 있는 원형의 돛도고리(돌그릇)가 1~2개 놓여져 있다([그림 6] 참조). 민가에 따라서는 직사각형의 길쭉한 돛도고리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그림 3]

4) 張保雄, 1995, 韓國동서(뒷간)文化的 地域的 研究, 대한지리학회지, 제30권, 제3호, pp.255-268.

5) 宋成夫, 1990, 韓國 島嶼地方 草屋民家の 地域性,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143. 본 논문에서 송성대 교수는 제주도의 돼지우리인 양돈측간은, 타도서의 양돈측간이 2평 미만인 것과는 달리 3평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조). 어쨌든, 돛도고리가 2개이거나 직사각형의 큰 것인 경우는 2마리의 돼지를 동시에 기르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그렇지만, 2마리의 돼지를 기르다가 일정시점에 이르러 커지게 되면, 1마리는 판매해서 현금화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돼지우리 안에는 보릿짚, 벼짚 혹은 청초(잡초) 등을 주기적으로 투입하였다. 이것들은 결국 돼지의 분뇨와 상당기간 동안 혼합되었다가 양질의 퇴비로 변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몇 종류의 퇴비재료 중에서도 양적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보릿짚이었다. 보리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거의 모든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조달할 수가 있었고, 아울러 각 농가에서는 퇴비의 재료로서 보릿짚이 가장 적합하였음을 경험에 의해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소나 말의 사육농가에서는 조짚, 벼짚 및 청초가 퇴비 생산용보다는 사료로서의 의미가 더욱 컸다.

돼지우리의 밑바닥은 보통의 지면보다도 50cm 전후의 낮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돼지 분뇨와 보릿짚 등이 혼합되어 쌓이는 공간, 즉 퇴비가 생산되는 공간이다. 이와 더불어, 봄부터 가을에 걸쳐 강수량이 많을 때에는 퇴비생산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마당이나 변소 주변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⁶⁾

돼지막은 돼지의 수면과 휴식공간이다. 돼지막은 측간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나 측간의 좌우 양 측면 등 위치하는 방향은 다양하나([그림 1], [그림 2], [그림 3] 참조), 이에 대한 특별한 방위근거는 없는 듯 하다. 다만 청취조사에 의거하자면, 마을 노인들은 돼지가 뜨거운 여름철에 땀을 배출시키지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로 돼지막 근처에 감나무, 유자나무, 대나무 등을 식재하거나, 혹은 변소 자체를 옮기는 경우에는 그것들이 자생하는 장소에 돼지막을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⁷⁾ 특히, 감나무의 경우는 비교적 잎이 커서 여름철 음지를 만드는데 효과적이었으며, 또한 제주도의 전통 옷인 갈옷의 도색재료로서 풋감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어 여러 농가에서 많이 도입되었다([그림 3] 참조).

돼지막의 지붕은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나무토막과 띠를 재료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6) 濟州道, 1996, 『濟州의 民俗 IV』(衣生活·食生活·住生活), 濟州道, p.504.

7) 이에 대해서, 송성대 교수도 아래의 책에서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다. 송교수는 그늘나무의 종류로서 감나무, 유자나무, 팽나무 등이 이용된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제주도의 똥돼지 문화를 반도부의 똥개 문화와 대비시켜 아주 재치있게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의 통시문화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송성대, 1998,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제주인의 해민정신 (개정 증보판)-, 파피루스, pp.453-463.

지붕의 형태에서는 원추형과 타원형이 주류를 이룬다. 물론 이점은 지붕을 만들어 얹히기 이전 단계에서, 돌담으로 돼지막을 어떤 모양을 취하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돼지막의 면적이 고작 1평 남짓이기 때문에, 가령 사각형 모양으로 기둥대용의 돌담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지붕의 형태는 원추형이나 타원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가에 따라서는 원추형이나 타원형의 지붕을 미리 마당에서 조립·제작한 후에 돼지막의 돌담 위에 얹혀 놓고 새끼줄 등을 이용하여 얹어 매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다.

돼지막 지붕의 형태가 원추형 혹은 타원형인 배경은 제주도 초가지붕의 형태나 '늘(날가리)'의 형태와 같이 바람(강풍과 태풍)을 의식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여러 농가에서는 안심하지 못하여, 원추형 혹은 타원형의 지붕 위에 다시 그물을 씌워 놓거나 굵은 나뭇가지와 몇 개의 돌을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였다.

Ⅲ. 통시의 이용

제주도의 서민들이 대소변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측간의 이용과 요강·오줌항(오줌 항아리)의 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주로 대소변 모두를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공간적 특성을 지니는데 반해, 후자는 주로 소변을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용기로서, 특히 오줌항은 일시적인 저장기능까지 겸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그러나 이 두 요소에 대한 활용적 측면에서의 엄격한 구분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 이유는 주간과 야간, 어른과 아이, 남성과 여성, 날씨(우천시)와 계절 혹은 각 가정에 따라서 차이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전술한 두 요소에 대한 사용상의 차이를 전제로 검토·비교함으로써, 제주도 서민들의 대소변의 해결방법과 이용적 측면에서의 특징을 서술하기로 한다.

1. 측간⁸⁾의 이용

제주도의 측간(배변공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용하는 것이나, 각 가정에 따라

8) 여기서 '측간(廁間)'이라 함은 통시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배변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는 환자, 노약자 혹은 유아기의 아동들이 제외된다. 그리고 어른들의 경우도 간혹 측간의 이용을 제약받을 때가 있다. 이 경우를 검토해 보자.

측간 이용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야간의 경우이다. 특히, 겨울철 자정을 전후한 시간대에는 무서움 때문에 어른들도 측간 이용을 두려워 할 정도이다. 더욱이, 예로부터 통시에 거주한다는 무서운 귀신(顯神)의 존재는 야간의 행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⁹⁾ 그러나,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냥과 촛불 또는 호롱불(각지불) 등을 지참하게 되지만, 항상 바람이 부는 제주도에서는 그것들마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농·어촌 지역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곳이 많았다. 그러므로, 겨울철 밤 8시 이후에는 측간의 위치조차 제대로 찾지 못할 정도로 사방은 컴컴할 수 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이면, 무서움이 배가되어 혼자 가고 싶은 용기는 거의 사라져 버린다. 어린 아동들의 경우는 무서움 때문에 마음놓고 용변을 보지 못하였음은 물론, 심지어는 너무나 떨린 나머지 배변공간 아래쪽으로 고무신 한 쪽을 빠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 관계로 한집안 내에서도 한 밤중 만큼은 형제자매끼리 짝을 이뤄 측간을 이용해야 하는 소동이 벌어지곤 하였다.

한편,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은 집안 어른들의 경우는 측간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담배를 피워 무는 습관이 있었다. 이 때의 담배는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는 습관적 욕구만이 작용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담뱃불은 안방에서부터 측간까지의 구간을 밝히는 역할은 물론, 측간 안에서는 디딜팡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12~2월의 동기의 야간에는 어른들조차도 측간으로 이어지는 주변부의 돌담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측간 안에서 발을 헛디더 찰과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상황을 연상해 보면, 한밤중에 집안 어른들이 측간으로 향하며 피우던 담배는 그 본질적인 의미 외에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측간 이용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천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제주도의 전통적인 통시의 측간에는 지붕(有蓋)없이, 측간 주위를 돌담으로 에워싸서 하반신 이하를 가릴 수 있도록 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비가 올 경우에는 주로 천으로

9) 金仁顯, 1998, 『韓國 濟州—歷史·文化 뿌리學』(上), 宇鑄出版社, p.34.

된 우의나 띠로 엮은 우장(雨裝 : 도롱이)¹⁰⁾을 둘러쓰고 앉아 용변을 보는 것이 예사 이나, 매년 7~9월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장마철에는 우의 하나로는 도저히 용변을 마칠 때까지 견디기가 힘들다. 결국, 우천시에는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개측간(有蓋廁間)을 이용하는 것이다([그림 3] 참조). 하나의 마을 단위로 보았을 때, 유개측간의 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희귀할 정도는 아니었다.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에서의 청취조사에 의하면, 대략 10호당 1호 정도로 유개측간이 있었다.¹¹⁾ 구체적으로, 1970년대 초반의 상황을 토대로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자. 북제주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1972년 10월 현재, 신엄리의 총호수는 256호이며 인구는 1,051명(남: 505명, 여: 546명)이다.¹²⁾ 이 수치를 기초로 산정하자면, 신엄리의 유개측간은 약 26개 정도였다. 신엄리의 자연촌락은 윤내미(윤남동), 벼룻골, 시커리, 안골, 큰동네, 당거리, 셋동네 등으로 구분되는데, 가옥들은 마을 안 길을 따라 30~40호씩 밀집되어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큰비가 내릴 때의 용변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유개측간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라는 지역사회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측간을 이용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요강과 오줌항의 이용

제주도에서도 요강은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이동식 변기이다([그림 5]).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초등학생들의 연령층과 노약자들은 야간과 추운 겨울철에 성구별 없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재 제주도에 남아 있는 요강은 재료상으로 보아 반도부의 요강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요강도 반도부로부터 건너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한 시기도 반도부에 비해서는 다소 늦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에서는 자연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통나무나 현무암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요강을 제작할 수 있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필자의 식견으로는 아직까지 자기(磁器) 이외의 통나무나 현무암을 재료로 사용한 요강이 학계에

10)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띠(茅, 새)로 엮은 비옷을 말하며, 우산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우장은 대략 정강이 부근까지 길게 늘어뜨릴 수 있었으며, 가슴부근에서 동여메여 사용하였다.

11) 濟州道, 1996, 『전계서』, p.471에 의하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마다 뒷간에 지붕이 없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지만, 지붕을 덮었던(有蓋廁間) 집도 몇몇 집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2) 북제주군, 1973, 『제13회 통계연보』, 북제주군 내무과, p.9.

보고되거나, 혹은 지역박물관¹³⁾에 유물이나 민속자료로서 소장·전시된 예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¹⁴⁾

보편적으로 요강은 여성들의 야간 소변 해결용으로 주로 사용하였지만, 농·어촌지역에서는 성인 남성들도 종종 사용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성인 남성들도 야간만큼은 소변 때문에 일부러 측간까지 가는 일은 오히려 드물었다. 요강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택지내의 우영, 늪굽, 또는 마당의 한쪽 구석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성들과 어린 아동들은 소변은 물론 대변까지도 요강에서 해결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요강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마루나 난간의 한쪽 구석에 배치시켜 놓았고, 이른 아침이 되면 주부들은 가장 먼저 요강내의 오물을 처리하였다. 이것은 주부들의 하루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대개 날이 밝자마자 바로 행하였다. 요강내의 오물처리는 두 가지로 나뉜다. 대소변이 혼합된 경우에는 돼지우리나 측간 아래로 쏟아 버리지만, 소변만 들어 있을 때에는 측간 옆에 설치된 오줌항에 반드시 저장해 놓는다. 물론, 이 때의 오물은 그 어느 쪽도 거름으로 사용하기는 마찬가지이나, 이용적 측면에서는 오줌 한 가지만 들어 있는 경우가 훨씬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오줌항은 보통 측간 근처에 설치하여 오줌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 두는 용기이다. 오줌항은 측간 부근에 단순히 세워 놓기도 하지만, 땅속에 파묻는 가정도 있으며, 또한 가족이 많은 가정에서는 2~3개를 준비해 놓는 경우도 있다. 땅속에 파묻는 이유는 사람이나 가축들의 왕래시, 혹은 아이들의 장난 등에 의해 깨질 우려를 대비해서이다.¹⁵⁾ 오줌항 위에는 나무판자 등으로 덮개를 만들어 씌워 둔다.

13) 제주도의 유물이나 민속자료를 보관·전시하는 지역박물관으로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제주시 일도2동), 제주교육박물관(제주시 이도2동), 제주민속박물관(제주시 삼양3동, 사설)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야외 전시기능을 겸비한 제주민속촌(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사설), 중문민속박물관(서귀포시 중문동, 사설) 및 성읍민속마을(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등에서도 제주도의 생활도구나 민속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2001년 6월 중순경에는 국립제주박물관도 개관될 예정이다.

14) 삼양 3동에 소재하는 제주민속박물관(사설, 박물관장: 진성기)에는 낫쇠로 만든 요강(요광)이 전시돼 있다. 이것은 과거 결혼 등의 예식을 행할 때 신부가 가마에 실어 사용하던 작은 요강이다(2001년 6월 2일(토), 박물관장 진성기 선생과의 전화 인터뷰). 이 낫쇠로 만든 요강은 주로 조선시대 이후에 제작되어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는 재료가 없었던 관계로 반도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보통, 사람들은 돼지의 사료를 주기 위해 하루에도 몇 차례씩 통시부근을 지나쳐야 하며, 아울러 일년에 한번씩 돼지우리 안의 거름을 밖으로 내놓을 때도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돼지가 성장해서 발정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를 뛰쳐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통시 부근에 세워둔 오줌항은 잘 깨지게 된다.



[그림 5] 요강 : 이동식 변기(애월읍 하가리)
(사진 촬영: 1998년 1월 26일)

오줌항은 성인 남성들의 소변을 해결하는 용기로도 사용되었다. 물론, 이 때는 대개 집안 일을 돌보며 가정내에 머무르는 주간인 때가 많다. 이처럼 오줌을 항상 모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농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어른들의 사고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오줌은 보리밭(주로 2~4월 사이)과 조밭(주로 7~8월 사이) 등의 비료로 활용하였으며(〈표 2〉 참조), 오줌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바닷물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⁶⁾ 그리고 경작지까지의 오줌 운반은 주로 여성들이 허벅지¹⁷⁾를 사용하였다.

IV. 돼지사육에 따른 똥거름(돼지거름)의 생산과 이용

1. 돼지의 사육

인간이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정착생활과 더불어 행해졌다고 추측할

16) 濟州道, 1994, 『濟州의 민속II』(生業技術·工藝技術), 濟州道, p.46.

17) 오줌을 운반하는 허벅지는 식수 운반용으로 사용되던 것 중에서 몸체 부분에 굵이 가거나 혹은 주둥이 부분이 깨진 것을 부분적으로 수리하여 사용하였다.

수 있을 것이다. 그 만큼 돼지는 털, 가죽, 고기 등 여러모로 유용한 가축이며, 이러한 사실은 관련유물의 출토나 고대사서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돼지사육에 대해서는 『위지』한전 마한조(『魏志』韓傳 馬韓條)의 서기 237~240년 사이에 나타나는 기록이 가장 오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⁸⁾

어떻든, 상품작물이 도입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의 돼지는 귀중한 상품과도 같은 존재였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판매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가정마다 소중히 여겼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제주도의 통시에서 사육되던 돼지는 재래종의 흑돼지이다([그림 6]). 그러나 오늘날 그 수는 많이 감소한 상황이며, 성읍민속마을 및 제주민속촌과 같은 관광지 외에 개인이나 일부단체에서 보존 및 번식에 힘을 쏟으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돼지의 사육은 최초 도내의 오일장이나 혹은 마을내 다른 집으로부터 새끼돼지(제주 방언으로는 ‘젯도새기’ 또는 ‘자릿도새기’라 한다)를 사 오는 데서 시작된다.¹⁹⁾ 한 집안 내에서의 사육을 전제로 했을 때는 암수 2마리를 쌍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새끼돼지는 출생으로부터 약 35~40일 정도의 것으로서, 중간정도의 크기(보통 ‘중간도새기’라 칭함)가 되는 1년 정도의 기간까지는 동시 사육이 가능하다. 그것은 1년 동안의 사육기간에는 그다지 먹이(사료)가 많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 돼지 이후에는 사료의 양이 배로 늘어나게 되어, 결국 일반 농·어가에서는 1마리를 처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마를 사육하는 농·어의 경우는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애당초부터 1마리만을 기르기도 한다.

〈표 1〉은 1967~1969년 사이의 돼지사육 가구수와 당시에 사육되던 총 돼지 수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토대로 당시 제주도 돼지사육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돼지 사육 가구수에서는 대부분이 10두 미만의 가구가 점하고 있으며, 1가구 당 평균 사육 돼지수는 1.4두(돼지 사육 가구의 3년간 평균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 가

18) 돼지사육과 관련되는 유물이나 과거 기록에 대해서는 주강현(1996),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사, pp.239-251 및 金仁顯(1998), 『전계서』, pp.22-33이 참고가 된다.

19) 金仁顯, 『전계서』, p.23.

20) 돼지 2마리를 동시에 사육하다가 약 1년 후 1마리를 다른 집이나 또는 시장에 내다 팔 경우, 이 돼지를 ‘가름도새기’(가름 시기가 된 돼지의 의미)라 한다. 각 가정에서는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돼지가 없어지게 되면, ‘가름도새기’를 구입하여 다시 키우기도 한다.



[그림 6] 제주도의 재래종 흑돼지
(사진 촬영: 1969년 1월 31일)

구가 1마리의 돼지를 기본적으로 사육하고 있다는 점 외에, 암수 한 쌍을 동시 사육하는 가구도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더불어, 1가구 당 2마리의 사육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당시의 경제수준이 어려웠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이점은 제주도의 총 가구수에 따른 돼지 사육수와 관련지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표 1>에서 3년간에 걸친 도내의 가구 당 평균 돼지 사육수는 0.8마리로서 1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돼지의 판매 혹은 추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백기에 있는 가구도 포함되지만, 고령화로 홀로된 노년층 가구도 많이 포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노년층 가구에서는 동시에 돼지를 기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지역별 돼지사육 비율에서는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반면, 농·어촌 지역을 많이 포함하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돼지의 사료는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농산물의 찌꺼기나 잔여물이 주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보릿겨(‘누까’)와 조겨(‘조채’)이다. 적어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리와 조를 주식용으로 재배했었기 때문에, 이 두 종류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공급되던 사료 중의 하나였으며, 여기에 소량이지만 매일

〈표 1〉 1960년대 후반 경 돼지사육 가구수 및 사육 돼지수의 변화

구 분		돼지 사육 가구수 (호)			사육 돼지수 (두)			총 가구수 (호)
		10두 미만	10두 이상	계	수컷	암컷	계	
1967		50,371	11	50,382	34,686	28,083	62,769	74,103
1968		45,920	110	46,030	32,488	33,099	65,587	75,886
1969		41,392	40	41,432	27,766	32,530	60,296	77,707
지역별 (1969년)	제주시	6,751	2	6,753	3,650	3,938	7,588	23,803
	북제주군	15,474	13	15,487	12,985	17,889	30,874	27,657
	남제주군	19,167	25	19,192	11,131	10,703	21,834	31,532

주 : 서귀포시는 당시 남제주군에 속해 있었으며, 지역별 총 가구수의 수치는 1969년도의 통계가 결여된 관계로 1970년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자료 : 제주도, 『제주도 통계연보(제9회, 제11회)』, 1969/1971, 제주도 조사통계과)

나오는 부엽의 음식물 쓰레기(특히, 쌀고물, 채소류 등)가 보통 가정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사료들이었다. 이들 보릿겨, 조겨 및 음식물 쓰레기가 돼지의 주식이었다면, 사람의 배설물 즉 인분은 부식이었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1일 3회씩 잊지 않고 주어야 했는데, 가령 집안 어른들이 농사일에 바쁠 즈음이면, 항상 집안내의 어린아이들은 돼지 먹이주기의 당번 역할을 해야만 했다.

이상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가을농사 후에 저절로 나오는 작은 고구마와 줄기, 콩깍지 등도 부차적인 사료로 이용되었으며, 간혹 전분공장과 주정공장에서부터 조달하던 전분 찌꺼기와 지계미(酒粕)도 돼지에게는 중요한 사료가 되었다.

우마를 기르는 농·어가의 입장에서는 돼지의 사료가 상당히 빈약해 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밭 농사일과 판매시의 가격을 전제로 생각하면 당연한 이치라고도 볼 수 있으나, 어쨌든 소와 돼지, 말과 돼지 사이에서의 먹이(사료) 관계는 항상 소나 말에 비중을 두어 확보하고 저장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우마를 많이 기르는 농·어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돼지가 푸대접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제주도에서의 돼지 사육은 간혹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차원에서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집안의 대소사(大小事)를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용시기가 거의 정해진 상황에서의 사육을 의미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라도, 집안의 대소사를 위한 돼지고기의 수급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재래종 흑돼지는 대개

1.5~2년 동안을 길러야 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돼지가 된다. 물론, 이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상품성도 크게 높아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집안에서 돼지를 사육해서 사용하려는 대소사는 자식들의 결혼이나 조상의 소상(小喪: 死後 1년째)·대상(大喪: 死後 2년째)때이다. 이들 집안의 대소사는 미리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1~2년 동안 돼지를 사육한 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돼지의 사용 용도가 분명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관심을 쏟게 되는데, 가을 농사가 끝난 후에 전술한 콩깍지나 고구마 줄기 또는 조로 죽을 쑤어(‘줄래’라고 함) 사료로 먹이기도 한다. 그런데, 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만큼은 어느 집안이든 돼지를 구하느라 한참 야단법석을 떨게 된다. 결국, 마을 내에서도 큰 돼지가 있는 집을 찾아 흥정을 하게 되고, 돼지 소유자는 자신의 집안 내에 별다른 계획이 없으면 대부분 양보해 주는 미덕을 보여 왔다.²¹⁾ 청취조사에 의하면, 결혼용이나 대소사 시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돼지는 그 무게가 대략 85~95근(51~57kg) 정도의 것이 많았다고 한다.²²⁾

돼지를 사육하는 중간 단계에서는 대개 거세(去勢)를 행한다. 거세를 하는 이유는 돼지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고기의 맛을 좋게끔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으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곤란하다. 아울러 발정기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한다.²³⁾ 즉, 수돼지인 경우는 발정기에 이르게 되면, 주야간 가릴 것 없이 특유의 몸부림과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 증상이 심해지면 통시 우리를 튀어 넘어 동네를 휘저어 나돌아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 손을 쓰는 것이다. 이점은 농촌지역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돛거름의 생산과정

송성대는 제주도의 통시가 다른 도서지방의 통시(변소, 측간, 정난, 서각, 구시 등)와

21) 만약, 한 마을에서 돼지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근 마을까지 가서 사오기도 한다. 1960~1970년대만 해도 경조사 시에는 돼지 1마리로서 일을 전부 해결하였기 때문에, 추렴하는 돼지는 최소한 80근(48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것이어야 했다(이 정도의 무게면 재래종 흑돼지로서는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갑자기 큰 돼지를 몇 시간 안에 찾아내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상(喪)을 당한 가까운 친척들은 먼저 큰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집을 찾아내는 일이 급선무였다.

22) 北濟州郡 涯月邑 舊巖里 出生, 成逢秋氏(女, 65歲)로부터의 청취조사에 의함.

23) 北濟州郡 涯月邑 新巖里 居住, 鄭炳孝氏(男, 67歲)로부터의 청취조사에 의함.

는 달리 넓은 면적을 가지는 이유는 인분과 취사폐기물 처리 및 양돈이라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 퇴비의 생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⁴⁾ 이와 같이, 제주도 통시에서의 돛거름(돼지거름)²⁵⁾ 생산은 농업적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필연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돼지거름의 생산과정은 통시우리 안에 주기적으로 보릿짚을 깔아 주는 일에서 시작된다. 이 작업은 단순히 보릿짚을 돼지우리 바닥에 편평하게 깔면 되는 것인데, 작업 시기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 작업시간과 작업량에 있어서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돼지우리의 바닥이 돼지의 분노나 강수현상으로 인해 질퍽거릴 때에는 반드시 보릿짚을 깔게 된다. 돼지우리 바닥이 오랫동안 질퍽거리게 되면, 그 만큼 돼지의 움직임은 둔해져서, 결과적으로는 병에 걸리기도 쉽고 고기의 맛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마를 사육하는 농·어가에서는 우·마사(牛·馬舍: 보통 '쇠막' 또는 '쇠왕'이라 함)의 거름(소거름)을 일단 돼지우리 안으로 집어넣어 돼지거름과 함께 혼합시키고 부패시키는 작업을 병행한다. 이 작업은 쇠막의 크기에 따라 작업 횟수가 달라지기는 하나, 평균적으로 지적하면 소거름의 경우는 한 달에 1번, 말거름의 경우에는 두 달에 1번 꼴로 이루어진다.²⁶⁾ 이처럼 소나 말의 거름을 직접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쇠막이 일정한 면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나 말이 밟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쇠막 안에 오랫동안 쌓아 둘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나 말의 배설물 중 조짚과 콩 종류가 다른 것들에 비해 잘 썩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²⁷⁾ 결국 소나 말의 분노와 보릿짚이 섞이지만, 좁은 공간 안에서는 완전히 부패시키고 발효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작업은 거름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주로 남성들의 일거리이기도 하나, 때에 따라서는 부부가 같이 행하기도 한다. 다만, 이 작업은 통시의 돼지거름을 내기(9~10월경) 한달 전에는 행하지 않는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부패시킬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통시의 돼지거름은 9~10월경²⁸⁾에 일단 밖으로 내놓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 宋成大, 1980, 前掲 論文, p.123.

25) 돛거름에서 '돛'은 돼지를 의미하는 제주 방언으로 도새기(돼지)의 축약형이며, 경우에 따라 '돛' 혹은 '돛'이라고도 표기한다. 따라서, 표준어로 옮긴다면 '돼지거름'이 된다. 이것은 다름아닌 돼지의 분뇨가 뒤섞이고 돼지가 직접 밟아서 만든 거름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현재 일반 농·어가에서 거름을 생산하지 않는 관계로, 일상생활에서는 사어화(死語化) 돼가고 있다.

26) 北濟州郡 涯月邑 新殿里 居住, 高漢燮氏(男, 67歲)로부터의 청취조사에 의한.

27) 北濟州郡 涯月邑 舊殿里 居住, 成무부氏(男, 61歲)로부터의 청취조사에 의한.

제주도의 돼지거름은 통시에서 곧바로 밭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통시에서 바로 퍼낸 거름은 돼지의 분뇨 등 아직도 많은 물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멀리 있는 밭까지 운반하기에는 상당한 노동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밭으로 가지고 가서 뿌리기 전에 미리 자신의 거주지 주변의 도로 상에 내놓는 것인데,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돼지거름을 보리씨를 파종하는 날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의 돼지거름은 보리농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돼지거름=보리」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전술한 것처럼, 돼지거름은 택지가 넓은 경우에는 집안의 한쪽 구석에다 쌓아 놓는 가정도 있으나, 이 경우는 아주 드문 편이고 대부분은 도로변 한쪽 돌담에 붙여서 쌓아 놓는다. 그러므로, 제주도 농촌의 9~10월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돼지거름을 주춧가 도로변에 쌓아 두는 시기이므로, 도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돼지거름은 한 시적으로나마 제주도의 독특한 농촌경관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돼지거름을 퍼내는 작업에서는 통시의 규모와 우마의 가축수에 따라 거름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시의 노동력이나 시간을 일률적으로 지적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거름내기 작업은 어느 가정에서든 하루를 소비해야만 끝낼 수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름의 양이 작은 가정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1:1로 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거름의 양이 많은 가정에서는 2:1~4:1의 비율로 행하기도 한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거름이 무겁기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높아야만 작업을 단시간 내에,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당일(대략 오전 8시~오후 6·7시경) 안에 끝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름내기 작업에서는 통시 안에서 쇠스랑으로 거름을 긁어모아 삼태기에 담은 작업이나 떡둥구미(‘멕’)를 이용할 때에는 거름을 지게에 올려놓는 작업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남성의 근력이 필요할 정도로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거름내기 작업에서는 운반도구인 삼태기나 떡둥구미에 담으며²⁸⁾ 통시에 통시 우리 밖으로 건네주는 사람과 통시 우리 밖에서 도로변까지 등점으로 운반하는 사람이 필

28) 돼지거름을 내는 시기는 대개 여름 농사인 콩(대두)과 고구마 수확 등이 끝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29) 떡둥구미를 이용할 때에는 운반하는 사람이 통시안까지 들어가서 지게에 올려놓은 후 통시밖으로 지고 나오게 된다.

요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주거지가 긴 울래를 끼고 있어서, 결국 통시에서 도로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혹은 통시가 크고 우마를 많이 사육하는 가정일수록 운반하는 사람의 비율은 배로 늘어난다. 통시 안에서 거름을 운반도구에 담는 역할은 남성들이 교대로 행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은 주로 운반하는 일에만 전념한다.

돼지거름을 통시 밖으로 운반할 때 사용되는 도구로서는 전술한 것처럼, 거름을 긁어모으거나 뜨는 것으로 쇠스랑과 삽이 있었고, 운반용으로는 삼태기(‘골채’), 떡둥구미, 산태, 지게(바지게 포함)가 있었다.³⁰⁾

3. 뚫거름의 이용실태

돼지거름의 전통적인 이용실태는 제주도를 2분하여 검토했을 때, 해안지역의 마을과 중산간 지역의 마을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각 지역에 분포하는 경지의 비옥도 차이와 돼지거름 이외의 퇴비의 조달 가능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해안지역의 마을인 애월읍 신업리의 사례를 토대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돼지거름의 이용실태를 서술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산간 지역 마을에서의 돼지거름의 이용실태를 완전하게 복원할 수 없는 관계로, 두 지역의 상대적인 차이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검토하기로 하겠다.

남석진의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비료는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다섯 가지 유형의 7개로 구분할 수 있다³¹⁾. 이들 중 돼지거름의 재료는 보릿짚, 잡초, 돼지의 분뇨, 소(말)거름으로서 대맥, 조, 고구마, 참외 등의 재배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뒤에서 상세히 검토하는 바와 같이, 특히 보리재배에는 해안지역이나 중산간 지역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던 중요한 비료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일시적으로, 도로변에 쌓아 둔 돼지거름은 보리재배를 위해 밭으로 운반되기까지 약 10~30일간 방치해 두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거름속에 함유된 물기가 빠지면서, 동시에 짧은 기간이나마 가을 햇살에 의해 더욱 부패되고 발효하게 된다. 거름을 밭으로

30)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8, 『濟州道の 農器具』, p.336. 본서에 의하면, 이들 도구 중 ‘산태’는 두 사람이 앞뒤에서 들고 사용하는 것으로서 흔한 것은 아니나, 뚫거름을 많이 생산하는 집에서 소유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p.162). 그리고 ‘바지게’는 지역에 따라 ‘바작’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지게위에 얹혀 놓고 거름이나 흙을 담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주재료는 대나무나 싸리였다고 한다(p.139).

31) 南碩珍, 1987, 濟州島 傳統社會의 農業經營에 關한 研究—涯月邑을 中心으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1-74.

〈표 2〉 제주도에 있어서 전통적인 비료의 종류와 시비 농작물

구 분	비료의 종류	비료의 재료(성분)	사용된 주요 농작물
제 1 유형	녹비	대두, 잡초, 옥계기*	대맥, 조
제 2 유형	덧 거름 (돼지 거름)	보리짚, 잡초, 돼지 분뇨, 쇠(말) 거름	대맥, 조, 고구마, 참외
	쇠 거름(소 거름)	우마의 사료와 배설물	대맥, 조
	뇨(尿)	인뇨(人尿), 인뇨와 바닷물의 혼합물	대맥, 조, 면화, 참외, 배추, 고추, 기타
제 3 유형	재(灰 : 불치)	멜감(짚·나뭇잎·나무장작)의 부산물, 우마분을 태운 것	조, 피, 메밀, 면화, 육도, 조, 고구마, 감자, 팥, 기타
	어비	멸치, 복어, 고등어, 정어리	대맥, 조
제 4 유형	해조류	몸(모자반)	대맥, 조
제 5 유형	종자	콩(大豆), 팥(小豆)	대맥, 조
제 6 유형	기타	우마의 분뇨, 모래, 육도의 짚, 기타	대맥, 조

* 1년생 풀로 소의 먹이로도 많이 사용되는 베치(Vetch)의 일종이며 제주 방언이다. 정식 학명은 "Vicia Spp"이다.

(자료 : 南頤珍(1987), p.26을 토대로 필자가 일부 첨가·수정.)

운반하는 작업은 여름작물인 콩(대두), 깨, 고구마 등의 수확과 밭정리 작업의 진전에 따라 각 농·어가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나, 대부분의 농·어가에서는 여름농사의 마무리 단계를 맞은 상황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거름을 밭으로 운반해 둔다. 즉, 거름의 운반작업은 보리씨의 파종과 더불어 밭을 경운하기 전에³²⁾ 모두 끝내는데, 대략 11월 중순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거름의 운반작업은 마차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하루만에 마칠 수도 있지만, 떡둥구미를 이용해 사람의 등짐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3~4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밭으로 운반되는 거름은 보리씨의 파종방법에 따라, 밭 안의 거름의 배치상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서부 해안지역 마을에서의 보편적인 보리씨의 파종방법은 골파(고랑 뿌리기)와 산파이다. 여기서 골은 고랑을 의미하는데, 우선 거름을 고랑을 따라 한 움

32) 南頤珍(1987)에 의하면, 소를 이용한 전통적인 경운방법으로는 1일 500~1,000평(소 한마리) 정도가 가능하다고 한다.

큼씩 뿌리고 나서 보리씨도 고랑에다 뿌리면 된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밭을 경운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돼지거름을 일정하게 전후좌우의 간격을 유지하며 일직선상으로 배치시켜 놓아야 한다. 그러나 처음 밭을 경운하는 지점에서 일정구간까지는 거름을 배치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밭을 경운하기 시작하여 일정구간까지 끝났을 때, 첫 번째 줄 거름을 경운한 쪽에다 사용하기 때문이다. 어떻든 이 방법은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뒤따른다. 이에 대하여, 산과인 경우는 돼지거름을 적당한 간격으로 아무 데나 배치해 놓으면 되는데 결국, 밭을 경운하기 직전에 돼지거름과 보리씨를 여기저기로 훑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 자체가 간편하여 노동력이 덜 걸리며 작업시간도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중산간 지역의 마을에서는 미리 보리씨와 돼지거름을 섞은 다음 한 움큼씩 뿌리기도 한다.³³⁾ 이것은 화산회토로 인해 경작지의 비옥도가 떨어지고, 또한 보리씨가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리는 관계로 취해지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보리재배의 시기가 다가오면, 우선적으로 돼지거름을 미리 마당에 꺼내 놓은 후,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보리씨를 거름과 섞고 발로 밟아 찢거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다.³⁴⁾

이상과 같이, 보리씨의 파종방법과 밭의 위치에 따라 거름의 배치상태는 물론 뿌리는 방법이 다르기도 하였고, 나아가 거름의 이용실태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비료가 부족했던 전통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돼지거름의 효용도를 최고로 높이기 위한 농민들의 사교가 작용한 까닭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 농·어가가 소유하는 밭의 종류나 비옥도³⁵⁾는 돼지거름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33) 돼지거름과 보리씨를 혼합하는 방법은 앞서 제시한 문헌 濟州道(1994) 『濟州의 民俗 Ⅱ』(生業技術·工藝技術), p.56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34) 南碩珍, 1987, 前揭 論文, p.23.

35) 南碩珍(1987)의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지는 특성상 전부 肥田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질왓: 습기나 수분이 많이 함유된 밭, ② 작지왓(멜왓, 장멜왓): 돌 함량이 많은 밭, ③ 마모른 밭: 습기가 없거나 그것의 유지가 잘 안되는 밭, ④ 개흙밭: 토질이 극히 나쁜 밭, ⑤ 뜯밭: 토양이 가벼워 바람에 날리기 쉽고, 토심이 얇은 밭.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토양특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배 농작물과 지력회복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前揭 論文, pp.9-12). 따라서, 토양특성을 토대로 퇴비나 비료를 이용한 시비가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돼지거름은 지력회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로서 최고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 「전통」 문화 소멸의 시사점

지금까지 제주도의 전통적인 통시에 대해 외형적 특징과 함께 통시와 관련된 제주도 서민들의 생활문화사의 한 단면을 복원하여 서술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주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의 존속과 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전통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통시의 소멸은 무엇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제주 지역사회에 던져 주는 문화적인 암시는 과연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통시는 이미 대부분이 소멸되어 버리고, 극히 일부만이 오히려 특수한 사례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생활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본고에서 다룬 통시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주지역의 전통적인 생활문화적 요소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거나 변형 혹은 변화되고 있다. 삶의 질적 향상을 전제로 지속돼 온 경제생활은 이처럼 과거에는 몸에 배어 있어 당연시 여기면서도, 늘 불편을 느꼈던 생활문화적 요소들을 가차없이 변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사고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변화함에 따라, 그들의 소유하던 제도나 관습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일정한 지역사회의 전통은 지역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내면적 욕구와 시대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점진적으로 퇴색되고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떻든 결과론적 측면이기는 하지만, 통시의 소멸로 말미암아 근년까지 존재하던 몇 가지 생활문화의 한 단면들이 사라지거나 크게 변화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러한 단면을 구체적으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통시를 모태로 하여 이루어지던 일련의 농업적 재생산 활동이 완전히 사라진 점이다. 통시의 소멸로 돼지거름의 생산활동은 완전히 사라짐과 동시에, 그것을 대신하여 화학비료를 대량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돼지거름이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보리와 조를 비롯한 전통적 주곡작물의 생산도 겨우 명맥을 잇는 수준에서 침체의 늪을 걷고 있다. 따라서 돼지거름, 오줌 및 불치(재) 등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법 하에서 비옥도를 유지하는 농경방식도 더 이상 제주도에는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거주지(택지) 안에서 행해지던 돼지사육의 풍습과 그에 따른 집안 경조사(慶弔事) 시의 돼지추렴 풍속도가 거의 사라진 점을 들 수 있다. 각 가정에서의 인

분처리나 거름생산은 물론, 식용을 목적으로 1~2두씩 사육하던 풍습은 완전히 소멸되면서, 결국 전문 양돈업자들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고 마을 안에서의 추렵행위는 극히 희소적인 가치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집안의 대소사 시에도 이시돌 목장, 광령리 양돈장 등 전문 양돈장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하거나 혹은 축협 공판장으로부터 직접 고기를 구매하여 일을 치르는 상황이 되었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통시 이용에서 현대식 화장실(변소) 이용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생활습관과 태도의 변화이다. 여기에는 특히 여성들의 생활방식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전통적인 통시를 배경으로 한 생활에서는 여성들이 장시간의 외출 시에 가장 고민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이 덜어지게 되었다. 즉, 하루일과 중에서도 장독 항아리의 뚜껑 여닫기와 1일 3~4회 정도에 걸친 돼지의 사료주기는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일 중의 하나였다. 통시의 소멸은 그러한 여성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전히 일소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활동은 이전에 비해 한층 자유로워졌다. 따라서, 제주 여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좁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택지내의 토지이용 형태에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통시의 면적은 3~5평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현대식 변소에서는 대소변의 해결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도 1~1.5평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나머지 공간은 마당으로 확장하거나 우영으로 편입시켜 활용하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당의 중요성이 떨어진 만큼 마당으로 편입시켰다가, 후에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가정도 많았다. 극히 한정된 토지이지만, 택지 안에서는 오히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고가 작용한 결과이다.

제주지역의 주민들이 전통적인 통시가 소멸된 점에 대해 원시적 형태의 변소가 없어 좋다거나 돼지거름을 생산하지 못해 농업적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 새롭게 정착한 문화를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수세식이나 정화조식 화장실(변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편리하고 좋다는 보편적인 사고가 만연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통시의 문화는 너리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돌입하면서 제주도 내에도 각종 상품작물의 생산에 주력한 결과, 연작장해(連作障害)에 따른 경지의 지력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1990년대 이후부터 많은 농가에서는 유기질 비료의 확보나 인위적인 퇴비생산을 통해 경지

의 비옥도를 유지하려는 사고가 만연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과거에 사용했던 통시의 존재가 제주도의 농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였음을 느끼는 장년층 세대들의 하소연도 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통시는 문화의 발전단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지저분한 요소로서만 파악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반드시 새로운 문화의 접촉으로만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것이다. 결국 통시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결부되어 피할 수 없는 여건하에서 탄생된 하나의 작품이며, 그 배경에는 주민들의 생활문화적 지혜가 스며져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